

## 인증 첨부합니다

구분	항목	배점	취득점수
출석	-	40점	100% (14회차/14회차)
과제	문화체험 과제 제출	10점	10점
중간	글로벌 시대의 예술과 가치	20점	20점
기말	글로벌 시대의 예술과 가치 기 말고사	30점	30점

2p-12p중간

13p-20p기말

21p-32p퀴즈

## ox형식

1. 플라톤은 구체적 사물 속에 형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되도록 소거한 이성적 활동을 강조하였다.

x

형상과 현상의 구별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 분기점이고 차이점임. 플라톤은 형상(이데아)는 구체적인 사물에 있지 않음.

2. 르네상스시대의 황금비율의 발견과 적용은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작가,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x

창조, 작가, 공간에 대한 개념은 르네상스 이 시대의 '원근법'과 관계하는 것이고 황금비율을 고대 그리스시대의 형식미학의 핵심적 개념임.

3. 중세 예술은 암흑의 예술로, 동시에 빛의 예술이라는 모순적 특징으로 설명된다. 이때 '암흑의 예술'은 종교적 찬양의 내용만으로 주제를 한정했기 때문이라면 '빛의 예술'은 기독교 예술이 가지는 화려한 형식미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x(3.4번 문제 비슷하니 주의)

기독교 예술은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재료미학의 대상.

4. 중세 예술은 암흑의 예술로, 동시에 빛의 예술이라는 모순적 특징으로 설명된다.

이때 '암흑의 예술'은 종교적 찬양의 내용만으로 주제를 한정했기 때문이라면 '빛의 예술'은 기독교 예술이 보여주는 재료미학의 표현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o(3.4번 문제 비슷하니 주의)

중세는 암흑의 예술이었지만 표현적 측면에 있어서는 빛의 예술이었다.

5.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고 그 물질들이 이론 질서가 이미 고정,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물론의 특징을 가진다.

x

물질들이 세계의 구성요소라고 본 것은 유물론적 성격이지만 그 물질들의 '질서가 고정,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신이라는 외부 존재의 작용인 유심론(유신론)의 결과임. 고로 양 측의 관점을 모두 가진 스토아 학파는 유물과 유심의 결합적 측면이 있음.

6. 로마시대 예술은 그 기본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의 것을 절충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의 특성에 맞는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신이 아닌 전쟁과 영웅을 기억하는 시대로서 회자된다.

o

7. 서구 생명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 권위를 인정받은 학자는 갈레누스인 반면, 혈액순환론을 주장하여 현대적 이론의 토대를 제공한 학자는 윌리엄 하비이다.

o

8.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자론적 세계관에 토대로 한다. 이 학파의 사상가들은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곧 행복의 최대라고 보았다. 흔히 이 학파를 쾌락주의로 번역하지만 직접적 의미와 달리 그들의 삶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우 검소하였다.

○

9. 플라톤이 예술을 폄하하는 이유는 그것이 완벽함을 지향하는 상승의 운동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하강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

플라톤에게 진리의 세계는 고정불변한 이데아의 완벽함에 있기에 이데아로부터의 현실로의 하강, 현실에서 다시 모방의 세계로의 2차적 하강은 열등한 가치를 가진다.

10. 스토아 학파는 일개 범인의 눈에는 우연에 의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세상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결과일 뿐임을 주장하였다.

○

세상을 원자론에 기반한 우연성으로 파악한 에피쿠로스와 다르다.

11.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시보다는 역사가, 역사보다는 철학이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

보편성의 차원에서 역사는 특정한 상황을, 시는 그럴듯한 개연성을, 철학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시보다는 역사가 우월하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

12. 서구 근대가 이해하는 몸과 정신에 대한 입장은 이분법적인 것으로서 정신의 단조로움과 건조함을 극복하고 몸이 가진 감성적 측면의 복원을 통해 진정한 예술의 경지, 순수 예술의 시대를 이루었다.

×

근대가 표방한 정신/몸 이분법적 특징은 예술에서 더욱 극단화되었다. 로댕의 예를 통해 설명함.

13.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모방활동은 학습의 근원, 영혼정화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모방을 허구의 문제가 아닌 허위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

앞의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미메시스는 개연성의 미학이라는 점에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 허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듯한 이야기로서의 허구의 문제이다.

14. 고대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유비논리에 기반한 축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때 축성은 주술성과 관계하며 주술성은 테크네가 아닌 뮤지케적인 성격이 강하다.

○

축성, 주술성은 이미 뮤지케적 특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15.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중의 한명인 라파엘로는 비록 르네상스의 본원지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북유럽의 사실주의적 화풍의 선두자로서 동물의 그림 등, 당시로서 파격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다.

X

지문의 '라파엘로'를 북유럽의 '뒤러'로 바꾸어 이해하면 정확한 설명의 지문이 된다.

16. 플라톤은 형상과 현상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은 우리의 현실세계에, 형상은 초월적 관념의 세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

X

두 학자의 위치가 바뀌면 맞는 설명이 된다.

17. 중세예술의 특징은 한마디로 '빛의 예술'이었다 특히 플로티누스의 빛의 유출설에 기반했을 때 예술가들은 신의 보이지 않는 빛을 눈에 보이는 예술 작품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소위 형식미학의 선두주자들과라고 할 수 있다.

X

전반부는 잘 설명했지만 중세 예술은 형식미학이 아닌 대표적인 재료미학적 입장에 있다.

18. 스토아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일개 범인의 눈에는 우연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재로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에 그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 현자의 태도라고 보았다.

O

세상을 원자론에 기반한 우연성으로 파악한 에피쿠로스와 다르다. 스토아의 현상적 차원의 우연성과 원칙적 차원의 결정론을 기술한 문제.

19. 로마의 문화는 대체로 그리스 문화를 차용하였지만 콜로세움만큼은 그리스 문화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실용성을 부각시킨 건축양식이었다.

X

로마의 건축양식이 실용성을 강조한 것은 맞지만 콜로세움은 그리스 문화의 양식을 단계별로 모두 차용한 절충식 양식으로도 유명하다.

20.조각가에서 출발하였으나 <천지창조>라는 걸작을 창조한 미켈란젤로는 메디지 가문이 후원한 예술가로도 유명하다. 특히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한 그의 화풍은 웅장하면서도 역동적인 작품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X

스푸마토 기법은 다빈치 것임.

21. 중세 미학의 중심적 학자인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 즉 플라톤의 사상적 계승자로서 평가하는데 그 이유는 일자라는 빛은 단절 없는 유출 작용을 통해 플라톤이 주장했던 비레론을 적극 옹호하기 때문이다.

X

플로티누스는 비레론을 반박하며 빛을 중요시했다.

22. 스토아 학파의 세계관은 원자론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고통이 욕구와 불만족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에서 행복을 이끈다고 여겼다. 흔히 얘기하듯이 이 학파를 쾌락주의로 번역하지만 그 의미와는 달리 그들의 삶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을 뿐, 매우 청빈하고 검소했다.

X

원자론적 세계관을 주장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이다.

23. 스토아 철학에서 주장하는 세계는 우연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이해된다. 따라서 만약 세계의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그것에 대해 연연해하지 않는 부동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X

세계의 모습을 우연적인 것의 구성이라고 보는 것은 에피쿠로스적인 관점이며 스토아 철학은 세계를 결정적으로 본다.

24. 팝아트는 예술의 신화와 감동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술의 기초를 단단히 한다는 의미에서 ABC ART라고 불리기도 한다.

X

미니멀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25.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인간의 묘사에 있어서 몸과 이성의 대립적 측면을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근대의 대표적인 조각가로서 평가받는다.

X

로댕이 인간 표현은 몸과 이성의 극단적 대립을 통해 몸의 폼하를, 이성의 강조를 보여준 작가였다는 점에서 근대 조각의 아버지로서 불리운다.

26. 근대 시대의 미술중, 현실 도피, 현실을 떠난 상상력의 고취, 이국적인 느낌등을 강조한 화풍으로 낭만주의를 들수 있으며 특히 만종을 그린 밀레와 천사를 그린 쿠르베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X

낭만주의 자체에 대한 앞부분의 설명은 맞았으나 쿠르베는 결코 천사를 그리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주의적 화풍을 이끄는 선두라는 점에서 뒷 부분의 설명이 틀렸다.

27.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와 같은 예술 작품은 현실에 대한 모방이라는 점에서 허위의 문제이지 허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X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은 참과 거짓의 차원인 허위가 아닌 개연성의 차원에서의 허구의 문제라고 보았다.

28. 로마인의 세계관은 다분히 실용적인 것이어서 그 시대에 적합한 자신들의 특정한 스타일을 창조하는 대신 당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그것을 절충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로마의 문화는 로마식의 독특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예술을 모방하여 자신의 소유의 대상을 삼거나 아니면 그리스에 존재했던 다양한 양식을 하나의 건물에 모두 포함시켜 적용함으로써 절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예로 콜로세움이 있다고 수업시간에 설명.

29. 중세 시대의 예술은 형식에 저항하는 재료 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예술가라는 존재는 세계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빛을 예술이라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자라고 보았다.

×

예술가는 비가시적인 존재의 의미(빛의 은유로서 존재하는)를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의 비호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빛의 대상물을 표현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알리는 자들이었다.

30.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 신이 만든 의자. 목수가 만든 의자, 화가가 그린 의자 중 가장 열등한 것은 목수가 만든 의자이다.

×

가장 열등한 것은 현실의 대상인 목수가 만든 의자를 다시 모방하여 그려낸 화가가 만든 의자이다.

## 단답형

3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 )의 원리에 따른 축성을 통해 현재의 이미지가 미래에 실제 사건이 되기를 바라는 주술적 특징이 강하다.

유비

32. 동방미술과 헬레니즘 양식이 혼합인 ( A )양식은 종교성과 서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해당 양식의 창안물이라고 일컬어지는 ( B )라는 장식을 통해 색채감을 강조하였다.

A: 비잔틴

B: 테세라

33. 근대 사회에서의 교양은 자유 시민으로서 부상한 일반 대중이 갖추어야 할 두 형식, ( )와/과 시민의 통합에 강조점을 두었으며 특히 교양으로서의 예술이 가진 사회비판적 성격은 보다 확산된 전체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성에 기여하였다.

개인

34. “천사를 데리고 온다면 천사를 그리겠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쿠르베는 ( )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는 회화의 주제가 고상해야 한다는 당대의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며 회화는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주의

35. 진리미학을 주장하는 플라톤에게 ( )가/이 아름다움의 원인이라면, 재료미학의 기반을 제공하는 플로티누스에 있어 이것은 아름다움의 결과이다.

비례

36. 근대가 되면 화가는 더 이상 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가가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가의 반성의식의 강조를 통해 ( )와/과 같은 새로운 회화의 장르가 등장하게 된다.

자화상(33,34번 문제 비슷하니 주의)

37. 근대가 되면 더 이상 화가는 기술적 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 )의 대접을 받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자기 반성의 능력은 자화상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미술사에 등장시킨다.

작가(33,34번 문제 비슷하니 주의)

38. 로마의 문화, 특히 건축물은 그 형식에 있어서 그리스의 것을 상당부분 차용했으나 전반적으로 ( )의 가치를 강조한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인 콜로세움의 건축적 특징(형식적) 간단히 설명하시오.

실용성

39.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 최고로 구현된 ( )의 측면은 원근법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화면의 깊이와 명암을 통해 실재 대상에 더욱 유사하고 근접하게 표현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의미를 뜻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괄호를 채워 넣으시오.

모방

40.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이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 작가, 공간감과 같은 개념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대두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당시 ( )이라는 기법적 차원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원근법

41. 생존을 위한 것이 좋음으로 설정되는 원시 고대예술에 있어서 예술을 구성하는 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테크네와 뮤지케중에서 더욱 강조되었던 측면은 ( )이다.

뮤지케

42. 베를로 폰티가 세전의 작업을 ( )한 지속이라고 표현했을 때 ( )의 특징은 빛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사물들 자체의 풍부한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강조한 것이라면 '지속'은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2차원의 화폭위에 통합함으로써 사물의 견고함을 이루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숭고



## 서술형

4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갖는 입장의 차이는 크게 현상과 ( )의 대립으로 드러난다. 이 양자가 가지는 관계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각각 간단히 서술하시오.

형상, 실재(둘 중 하나만 쓰면 됨)

### 서술형 해설

현상과 형상과의 관계에 대한 두 학자의 입장을 비교하라는 것이므로 논의를 한정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였다는 설명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닙니다.

### 만점자 답안

1) 실재/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과 '실재'의 대립으로 드러난다.

플라톤에게 실재 혹은 이데아는 사유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본질을 뜻한다. 그리고 이는 영원 불멸하고 객관성을 띠므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데아를 지향해야함을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질료와 형상, 바꾸어 말해 현상과 실재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질료와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한 본질을 뜻하는 형상 두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함을 주장했다.

2) 형상/플라톤은 현상과 형상을 분리, 진정한 모방은 실재 그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모방은 실재 그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은 외면세계의 수동적이고 충실한 복제이다. 따라서 모방은 진리로 가는 적절한 길이 아니라고 하였다. 참된 실재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예술은 감각적인 것을 모방하므로 플라톤은 예술을 폄하했다. 모방이 좋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한다면 완벽한 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현상은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방은 왜곡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식론적 왜곡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표상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다. 표상을 통한 추론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모방적 활동을 옹호하였다.

44.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 )은 분리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플라톤과 대립한다. 그렇다면 모방에 대해서는 두 학자는 어떻게 대립하는지 모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질료

### 서술형 해설

질문에서 요구하듯이 두 학자가 어떻게 대립하는가, 모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은 부정적, 아리스토텔레스는 긍정적이라고만 단답식으로 답하거나 각각의 입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감동적인 것을 모방하라고 했다.) 부분적으로 점수를 감점함.

## 만점자 답안

1) 질료/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질료는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방은 왜곡이 아닌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인식론적 왜곡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표상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다. 표상을 통한 추론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나갈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모방적 활동을 옹호하였다. 반면에 플라톤은 형상과 질료를 분리. 진정한 모방은 실재 그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모방은 실재 그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은 외면세계의 수동적이고 충실한 복제이다. 따라서, 모방은 진리로 가는 적절한 길이 아니라고 하였다.

2) 질료/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플라톤은 모방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데아론을 펼치면서 모방을 세계의 침대에 비유했다. 그에 따르면 이데아로서의 침대인 침대의 원형이 있고, 장인이 원형을 상기해 제작한 감각적인 침대 그리고 감각적인 침대를 보고 그린 화가의 침대가 있다. 장인의 침대와 화가의 침대 모두 모방과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장인의 침대는 침대의 형상(이데아)을 분유해 사람들이 이 침대를 보고 이데아를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화가의 침대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재생산한 모방적 가상의 불과하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예술은 모방의 모방인 허상으로 실재인 진리보다 가치적으로 열등하다. 따라서 모방은 인식행위가 아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예술의 공통된 본질을 모방이라 주장했고, 모방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모방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게 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의 문제이고 모방을 인식행위로 간주했다.

3) 질료/플라톤은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방의 모방인 허상으로 실재인 진리보다 가치적으로 열등하다고 했다. 참된 실재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예술은 감각적인 것을 모방하므로 플라톤은 예술을 폄하했다. 모방이 좋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한다면 완벽한 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허구이지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다양한 모방을 통해 원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이고,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의 문제이며 허구는 유사성과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보편적 형상은 구체적 사물들 속에만 존재한다.

4) 질료/플라톤은 예술은 자연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며 참된 실재는 이상적 세계인 이데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은 그저 모방에 불과한 허상으로 실재 진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허구이지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허구는 유사성과 가능성의 원리를 통해 보편성을 획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편적 형상은 구체적 사물 속에서만 존재하고 예술은 자연의 대한 모방이 그자체에 관한 문제라고 여겼다.

5) 질료/플라톤은 모방이 절대로 형상적 세계에 접근이 불가능한 오로지 감각적 세계라고 했다. 형상적 세계는 이데아, 감각적 세계는 현실이다. 플라톤은 진정한 모방은 실재 그 자체인 이데아를 모방해야한다고 했다.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이 아닌 현실의 모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수동적인 모방을 할 수 밖에 없고, 2단계의 모방이라는 상승이 아닌 하강의 작용을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은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이데아를 실제 측면으로 끌어내려 동일시함으로써 모방을 통해 경이로움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모방활동은 절대로 진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45. 메를로 폰티가 세잔의 작품 경향에 대해 숭고한 ( )라고 주장했을 때 왜 ( )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속

서술형 해설

폰티에게 숭고한 것은 자연의 가변성이라면, 지속은 그러한 숭고성을 회화의 무대인 2차원의 공간에 어떻게 견고한 사물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속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평가함. 혹 친구들끼리 동일한 답을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약간씩 점수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설명 과정에서 '유기체' '사물성' 등의 중요한 개념어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함.

만점자 답안

1)회화적 목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구현인데 세계는 매 순간 진행되어 화가는 이 세계의 매 순간을 사실로써 그려야 하는데 세잔은 사물을 지각에 비친 바를 신체의 코기토가 지각한 대로 그리려 하였고, 풍경의 구도를 탄생하는 유기체로 포착하여 사물의 숭고한 지속을 구현해 냄.

2)메를로 폰티는 실재나 본체가 시공간적으로 제약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지각적으로 나타내는 현상학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세잔의 그림에 복수시점을 통해 그것을 구현해내어 대상이 가진 견고한 사물성에 집중하고 화폭에 또 다른 질서를 부여했다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을 이용해서 사물을 흐트러 뜨려 표현했으면, 반면에 세잔은 그 물체의 견고성을 화폭에 그대로 담음과 동시에 자연의 영원함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46. 사실주의의 창시자 쿠르베는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라는 단언을 통해 유명하다. 그렇다면 그가 선호한 소재는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 빈곤한 사람들, 일상의 소재, 평민

서술형 해설

쿠르베가 단순히 일상적 소재를 그렸거나, 자화상을 그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왜 그가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노동자와 평민의 일상적 삶을 그리는가의 이유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그 이유가 '당시 전통과 규범의 저항'이라고 간단히 쓰여만 있어도 이는 정답이지만 아무리 장황한 이유를 쓴다 해도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답이다.

만점자 답안

1)현실을 주관적으로 변형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로 회화

의 주제는 고상하다는 당대규범에 저항하면서 노동자와 평민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2)쿠르베의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라는 말뜻은 내가 경험 해보지 않은것을 그리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그의 개인전 레알리즘에서 사실주의가 유래되었으며 회화의 주제는 고상하다는 당대규범의 저항하여 노동자와 평민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19세기 프랑스의 과학주의적 태도의 영향을 받았고,근대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에대한 정직한 기록이자 현실의 규명이며 세계관이 반영이라고 그의 작품을 생각했다. 주요작가는 쿠르베와 밀레가있다. 쿠르베는 이름 모를 사람의 장례식등등 사소한 일상의 모습들을 주로 그렸다.

## ox형식

1. 밴드 퀸의 결성 이후, 글로벌한 수준의 최초 메가히트곡은 <보헤미안 랍소디>이며, 이 곡은 당해 최고의 작곡가에게 수여하는 아이버 벨로 상을 프레디 머큐리에게 선사한 곡이기도 하다.

x

2. 밴드 퀸의 활동 당시 영국의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음악세계가 반전, 인권의식 등을 다루는 등 당대의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주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x

3. 추상화가인 잭슨 폴락의 회화를 기호적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이는 시간의 흐름과 작품의 과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상기호에 해당한다.

x

4. 추상화가인 잭슨 폴락의 작업은 창작 과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작 과정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호의 종류 중 도상에 속한다.

x

도상이 아니라 지표임.

5. 벤야민은 예술의 정치화를 통해 예술작품의 참여자가 확대, 민주화되고 아우라가 소멸됨으로써 작품과의 비판적인 거리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o

6. 벤야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아우라의 소멸이 정치의 예술화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x

아우라의 소멸은 예술의 정치화를 발생시켰으며 벤자민은 예술의 정치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함.

7. 벤야민은 영화의 등장은 인간의 지각방식을 촉각적으로 바꾼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촉각적”이라는 개념은 감각적 자극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현대 예술에서의 체험과 가상 현실 등의 강조를 의미하여 이후 모든 영화에서의 4D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x

벤야민의 촉각은 피부의 감각 같은 의미가 아니며 다양한 감각 비율의 혼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일 뿐 아니라 벤야민의 등장시기가 2차 세계대전 부근이므로 4D 영화와 벤야민과의 연관은 시대 착오적인 연결이다.

8. 벤야민은 기술이란 예술가들이 미래적 가치를 가진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고 보았다. 따라서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 누구보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하고 이를 예술에 적용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

9. 벤야민은 사진의 등장을 통해 예술의 가치가 전시적 가치로부터 주술적 가치로의 전환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것은 곧 아우라의 소멸을 뜻한다.

X

주술적>전시적

10. 패스트 패션은 생산과 유통의 빠른 속도와 민감한 트렌드 포착능력,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유의 증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유기농 패브릭을 주로 사용하기에 친환경적인 측면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X

11. New Public Art(새로운 공공예술)의 참여적 성격을 강조한 수잔 레이시는 도시에서의 공공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식적 기능이며 이를 위해 거대 관공서들의 전경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곳에 조각 작품들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의 정서 함양, 공동체 의식에 공공예술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

12. 미디어 레이어는 다중의 미디어들의 중첩적 사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압축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

X

13. 미니멀리즘 양식의 회화는 화려한 장식이 아닌 구도와 형식의 기본적인 요소를 충실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은 ABC ART 라고도 불리운다.

O

14. 인상주의는 대상이 아닌 빛에 주력함으로써 원근법을 파괴하고 대상의 확실한 형상보다는 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색감과 형태적 가변성을 강조하였다.

O

15. 차가운 추상은 개별적인 특징을 소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개념화, 사유화 과정과 연관된다.

O

16. 패션과 의복은 다르다. 패션의 변화를 전제로 하며 개인의 공적, 사적인 차원의 조율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랑스 68혁명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X

68혁명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 이후 발생한 사건임. 68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다름.

17. 대상의 시점을 다수로 파악하는 입체파(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세잔은 흠어진 시점을 다시 통일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대상의 견고함을 구현하였다.

X

세잔이 입체파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전개되어야 맞는 설명이다.

18. 군사 용어로서 아방가르드는 전위부대라는 의미이며 이를 미술용어에서 이어 받아서 권위주의적 화풍의 유지를 통해 독일 문화와 예술의 민족주의적 우월함을 강조하는데 사용하였다.

X

독일의 민족주의적 우월함과는 상관이 없는 전통과 기존 질서에 대한 파괴와 혁신으로서의 예술 운동이다.

19. 칸트 사상에 있어서 신의 존재의 증명은 인간의 순수이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다.

X

순수 이성은 감각 정보에 의한 오성 작용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신의 존재와 같은 증명을 할 수 없다.

20. 패션은 의복과는 다르다. 패션은 변화를 전제로 하며 개인의 공적, 사적 차원의 조율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프랑스 68혁명 이후의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X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면 맞는 설명이지만 68혁명은 1968년 문화혁명을 지칭하므로 시대적 격차가 상당하다.

21. 1960년대 프랑스에서 활성화된 공공예술은 특히 조각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이후 수잔 레이시의 새로운 공공예술의 장식적 특징으로 강화되었다.

X

공공예술이 조각의 영역으로 강화된 것은 1960년대가 맞지만 수잔 레이시의 활동은 이러한 기존의 공공예술의 고루한 성격, 이를테면 장식적 성격을 비판하고 시민의 개입과 같은 보다 참여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22. 프랑크푸르트 학파에게 비판이란 인간의 고유성, 제도의 창조성, 수정가능성을 함축하는 실천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면 칸트에게 비판이란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인식 조건의 한계에 대한 것이었다.

O

23. 팝아트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ABC ART로 불리우며 특징으로는 서구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다.

X

24. 메를로 폰티가 세잔의 작업을 '숭고한 지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숭고는 자연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식은 그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는데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보았다.

○

25. 모던의 특징은 형도,색도,공간도 아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아래 등장한 인상주의는 원근법의 파괴를 통해 공간을 없애고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의 변화를 꾀했으며 정밀한 표현이 아닌 빛에 의한 인상을 통해 대상의 견고함을 파괴 하였다.

○



## 단답형/서술형

1. 메모리얼 공간을 통해 치유의 공공예술은 ( )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 정도로 해당 작가의 영향력은 거대한 것이었다. 베트남 메모리얼을 건축한 그의 작품은 검은 돌과 흐르는 물, 부조의 조각과 은유를 사용해서 산자와 죽은자를 모두 위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가명을 쓰시오.

마야 린

2.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올리우스 포퍼의 대표적 작품은 ( )로, 이것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정보 사회에서 검색어를 일시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식을 다중감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Bit fall

3. 신/구 미디어의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차용하는 것, 더 나아가 개선할 때 이를 ( )이라고 한다.

재매개

4.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평가받는 브라이언 메이의 연주는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첫째, 레드 스페셜로 표현되는 독특한 기타톤, 둘째, 피킹 테크닉, 셋째, ( )이다.

치밀한 두뇌 플레이에 기반한 딜레이 이펙트 연주

5. 피에르 레비의 주장에 따르면 기능이 실현되어 실재가 되는 것과 실재가 잠재화되어 기능이 되는 일은 모두 ( )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substance

6. 칸트는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 ) 숭고로 나누었다. 그는 숭고의 체험이 인간의 이성능력의 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역학적

7. 대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포착이 대상의 양끝을 순간에 인식하는 것이라면 (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8. 세잔이 후기 인상주의파로 불리울 때, 기존의 인상주의와의 차별화되는 측면은 대상의 견고함에 대한 추구였고, 이러한 견고함을 표현하기 위한 세잔은 대상을 다시점으로 파악하고, 이후 이를 하나의 시점 안에 겹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메를로 폰티는 세잔의 이러한 화풍을 숭고한 ( )이라고 표현하였다.

지속

9. 근대 도시의 작동은 인구, 재화, 사물들의 유통과 순환의 문제와 관계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행해졌을 때 우리는 이를 도시에 대한 훌륭한 ( )라고 말한다

통치

10. 1960년대 이후 시작된 프랑스의 공공예술가 주목한 장르적 변화는 기존의 회화 장르로부터 ( )의 장르로 요약할 수 있다.

조각

11. 벤야민은 영화를 통해 예술 감상의 감각적 비율이 바뀐다고 보았다. '산만한 지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지각은 ( )지각이다.

촉각적

12. 근대 도시는 ( ), 사물, 재화의 순환을 통해 작동하며 이러한 순환이 잘 되었을 때 좋은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

13. 추상화가인 잭슨 폴락의 작품은 창작의 결과물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호의 종류중 ( )에 해당한다

지표

14. 메를로 폰티는 세잔의 작업을 숭고한 ( )이라고 부른다. 이때 숭고함이란 자연의 현상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며 ( )은 이러한 현상을 2차원의 화폭에서 대상의 견고함을 포착하려는 그의 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속

15. 근대 도시의 작동은 인구, 재화, 사물들의 유통과 순환의 문제와 관계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행해졌을 때 이를 도시에 대한 훌륭한 ( )라고 말한다.

통치

16. 1960년대 이후 시작된 프랑스의 공공예술가 주목한 장르적 변화는 기존의 회화장르로부터 ( )의 장르로 요약할 수 있다.

조각

17. 근대 도시는 ( ), 재화, 사물의 유통, 순환을 통해 작동한다. 그리고 이것이 잘 전개되었을 때 도시에 대한 훌륭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구

18. 근대 도시는 인구, 재화, 사물의 ( )을/를 통해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훌륭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순환과 유통

19. 공공예술의 기능은 크게 미적인 차원, 랜드마크의 차원, 실용적 차원을 담당하는 장식적 기능과 사회 비판과 미술의 전망을 제시하는 ( )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개입

20.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기법이라 할 수 있는 오브제는 작가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 )으로 불리운다. 또한 오브제는 일상적 사물이 놓인 맥락으로부터 이탈되어 다른 맥락에 배치된 대상을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낯선 맥락에 놓인 사물로서의 오브제는 사물 그 자체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충격의 표상을 발휘한다.

#### 기성품

21. 수잔 레이시는 New public ART(새로운 공공예술)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녀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실제 주장의 요지에 대해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

배경:1990년대 이후 침체된 공공미술의 쇠퇴기

요지:공적 장소에서 미술과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담보한 공간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 일상생활 공간과 일상적 이슈에 대한 창의적 개입과 관람객의 소통적 참여를 공공미술의 주요개념으로 설정

22. 패션은 ( )의 탄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전근대 시대에는 ( )이 탄생하지 않았기에 의복은 있었으나 패션활동은 부재하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패션의 핵심적 특징을 ( )의 개념과 연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 개인

패션과 의복을 구별하는 핵심적 특징은 패션은 개인적 정체성과 그가 속한 사회의 정체성이 긴장적 조화를 이루는 자율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단답의 경우 패션의 탄생은 곧 개인의 탄생이며 이것을 전근대와 비교하여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나아가 패션이 개인의 탄생 이후의 가능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 도구가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긴장적 조화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서술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정체성만을 서술한 경우 감점이 적용된다.

23. 1990년대 이후 ( )는 새로운 공공예술을 제시하는데 그녀의 주장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실제 주장의 요지에 대해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

#### 수잔레이시

#### 서술형 해설

크게 두 측면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공공예술이 등장하게 된 당시의 배경과 조건, 나아가 그녀가 주장하는 실제 내용입니다.

#### 만점자 답안

1) 1990년대 이후 침체된 공공미술 쇠퇴기(경제침체)에 대항적인 새로운 공공예술을 제시하였다. 기존 소비자본주의적 대중문화와 미술관에서의 고급문화 양쪽의 관습에 도전한 것인데, 이것은 공간만 바꾸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수잔 레이시는 테크놀로지, 날씨, 생태학, 정치학적 이슈들을 통합시켰다.(공공장소에서 미술과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실체적 물음이 아닌 삶의 의미를 담보한 공간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하였다.) 일상생활 공간과 일상적 이슈에 대한 창의적 개입과 관람객의 소통적 참여를 공공미술의 중요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공간을 장소로 바꾸어나갔

다. 또한 작품의 제작과정을 작품의 완결된 결과 못지 않게 관람객의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2) 1990년대 이후 침체된 공공미술 쇠퇴기에 대항하여 기존 소비자본주의적 대중문화와 미술관에서의 고급문화 양쪽의 관습에 도전하며 뉴장르 공공예술의 이슈를 주제화하였다. 기존의 공공예술이 고급문화의 공간만의 이동이어서 기존의 고급문화와 다를바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적 장소에서 미술과 관객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실체적 물음이 아닌 삶의 의미를 담보한 공간에 대한 물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간을 장소의 의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의미없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맥락과 함께 부딪쳐야하고 좋은 환경 창출을 위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야 장소의 의미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테크놀로지, 날씨, 생태학, 정치적 이슈들을 통합시켜 대항문화들의 이슈가 새로운 형식으로 하여 초반의 공공예술의 정신을 진화시키려 하였다

24. 칸트는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 ) 숭고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숭고 개념은 인간이 모두 경험하는 체험이 아니라고 그가 주장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역학적

#### 서술형 해설

숭고란 물질계에서의 인식의 실패로 인하여 예지계로 갈 수 있는 실천 이성이 기능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천 이성이라는 개념이 답안에 있어야 하고요. 둘째 아무리 실천이성이 작동하여 이성이 만개했어도 경험의 당사자가 생명의 위험적 상황에서는 그것을 숭고라고 느낄 수 없기에 주관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숭고는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실천 이성에 의한 이성의 만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주관적 안정성이 확보되어만 하기에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이 잘 설명되어있을 때에만 만점을 부여하였고 실천 이성 하나만 설명한 경우(아무리 실천 이성적 측면을 잘 설명하였어도 주관적 안정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1점을 감점함)

#### 만점자 답안

역학적/'예지계'는 인간이 숭고를 체험하기 위해 넘어 가야하는 단계이다. 그런데 예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천이성의 발휘가 필요하다 . 모든 인간은 능력을 통해 물질계에서 예지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며,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숭고를 체험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숭고를 체험하는 것은 인식의 객관성과 주관의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모든 인간이 숭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 퀴즈

### 1주차. 예술과 문화, 예술과 기술의 관계

01. 예술과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 ① 예술과 기술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도구로서 이용할 때 자신의 의미를 가진다.
- ②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작가로서 대두된 배경에는 시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 ③ 사진의 탄생은 회화의 존재이유를 회의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여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 ④ 현대로 오면서 테크네는 예술의 도구임을 거부하고 예술적 감성 자체를 변화시키면서 전개된다.

02. 원시고대시대의 예술의 특징으로 적당한 설명은?

- ① 원시 고대예술은 신석기 혁명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 ② 유비논리에 의한 이미지 반영은 축성을 통해 주술화 된다.
- ③ 그들의 예술은 현실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 ④ 라스코 동굴 벽화는 당시 성공적인 수렵활동을 위한 연습장소로 이용된 것이다.

03. 다음 중 이집트 예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이집트 예술은 그들의 영혼불멸 사상과 전제왕권이 결합된 양식의 결과물이다.
- ② 조각의 경우 부동성과 정면성, 대칭성의 표현양식을 따른다.
- ③ 인물을 묘사할 때 각각의 부분은 가장 완전한 형상을 반영하여 표현한다.
- ④ 집권자의 현실 지배와 신적 계시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술적 성격을 가진다.

### 2주차. 미메시스의 다양한 지향들1

01. 다음 설명 중 플라톤의 진리미학적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은 실재가 아닌 실재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② 반드시 무언가를 모방해야 한다면 인간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것을 해야 한다.
- ③ 그리스 미술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때는 황금비율 등 이상화된 신체를 주로 조각양식을 통해 표현했다.
- ④ 예술과 진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모방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02.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중용을 통한 행복의 도달을 삶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 ②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므로 변화하지 않는 고정불변한 존재에 대해 부정했다.
- ③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변화하는 것이 운동의 기본 방향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자에게 주어진 목적을 통해서이다.
- ④ 만물이 변화하게 되는 운동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목적인'이다.

0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미학적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편성의 측면에서 시는 철학보다 못하지만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 ② 시학에서 등장하는 테크노 포이에티케는 사물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생활에 유용한 활동 자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 ③ 플라톤에게 모방이 허구의 문제라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모방은 허위의 문제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카타르시스는 경이로움을 통해 모든 교육의 시작으로 작동한다.

### 3주차. 미메시스의 다양한 지향들2

01.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조차 원자로서 이해하는 물질주의적 사고에 기반해 있다.
- ②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부동심, 아파테이아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냉정한 이성의 상태를 말한다.
- ③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행복의 역리란 성취보다는 야망을 줄임으로 도달, 현실적으로는 금욕주의적 생활방식을 택한다.
- ④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귀족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엘리트적인 특성, 냉철한 이성 요구하는 바위같은 사상이다.

02.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중세예술은 종교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례나 조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서사적 목적을 강조한다.
- ②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의 기법은 갈비살 기법으로 로마의 아치 형태를 응용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③ 중세예술의 경우 그들이 비례나 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엄격한 도제식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 의해 작업되었으며, 그들이 예술을 종교인 도구로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 ④ 고딕양식은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천상으로 다가가려는 예술의 의지를 높이와 빛으로서 표현해 내었다.

03. 플로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리 우는 이유로 적당한 것은?

- ① 플로티누스가 주장하는 일자는 중세의 전성기가 되면 신으로 바뀌어 종교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② 일자론에서 예술가는 비록 종교에 종속되는 활동을 하는 자이지만, 보이지 않는 빛을 보이는 빛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③ 일자의 유출을 통해 두 세계의 이론의 경계를 없앴지만 여전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④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아 예술을 아름다운 허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4주차. 르네상스와 순수 예술시대의 도래

01. 전근대인들의 세계경험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체적 질서는 피를 통한 질서라는 태생적인 것으로 초자연적 질서로부터 기인한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 ② 존재의 질서는 곧 당위의 질서로서 생활양식 전반을 지배하였다
- ③ 포섭된 자, 명령받는 자, 질서 지워진 자로서의 존재적의 근거는 지배층의 권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④ 전근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그들의 이론 공동체의 기능적 분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02.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특징으로 적당한 것은?

- 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종교적 후원과 영향력으로부터 전적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 ② 르네상스는 순수 예술이 정립된 시대로서 과학적 지식과 교양으로 무장한 천재들의 시대였다
- ③ 르네상스 시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실주의적 재현의 도구가 되었으며 특히 조각의 차원에서는 기존의 재현의 방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깊이를 보여주었다
- ④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제도적인 체제와 공식화된 담론들을 통해 사회의 교양인, 문화의 창조자로서 이해되었다

03.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빈치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의 스케치나 메모는 많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완성된 작품의 수는 그 명성에 비해 미비하다.
- ② 라파엘로의 회화는 특유의 생명력과 우아함을 지녔으며 당시 종교적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 ③ 북유럽의 뒤러는 비록 르네상스의 주류를 형성하는 이탈리아 부근에서 활동한 예술가는 아니지만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유럽 회화사에 의미있는 궤적을 남겼다.
- ④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피에타 상으로 유명한 조각가지만 자신의 주 종목은 천지창조를 통해 증명하듯이 회화 분야이다.

#### 5주차. 근대적 주체와 예술의 흐름

01. 근대의 인간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설명은?

- ① 자기 인식의 기준을 자기가 아닌 타자화 된 시선을 통해 이해한다.
- ② 서구 근대인의 인간관은 이중적 차원에서 전개되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몸과 정신의 이분법적인 태도를 낳는다
- ③ 로댕이 근대 조각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적차이를 존재방식의 준거점으로 이해하고 이를 조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 ④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언제나 몸과 신체,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동양의 전통과 구별된다.

02.순수미술의 등장 이후 본격화된 다양한 미술 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설명은?

- ① 남성적인 바로크부터 여성적인 로코코로, 비이성적인 낭만주의로부터 현실만을 표현하려는 사실주의까지의 예술사조는 '주제' 또는 '주제'에 대한 대항의 순서로 나타난다.
- ② 바로크 양식은 빛과 어둠의 대비적 효과를 통해 장중하고 엄숙한 느낌을 준다.
- ③ 낭만주의 양식은 감성과 육체를 강조함으로써 아름답고 온화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④ 사실주의적 화풍이 추구하는 '사실'의 정신은 주제적 측면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방법적이고 표현적 측면에 대한 강조로 보아야 한다.

## 6주차. 근대가 보여주는 감각적 표현

01.다음의 설명 중 인상주의와 거리가 먼 내용을 고르시오

- ① 인상주의자들은 원근법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가변적인 이미지를 회화에 사용했다.
- ② 인상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감을 표현하는 이미지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것이었지 내용적이며 주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었다
- ③ 당시 유럽에 퍼진 사진기의 보급은 인상주의자들로 하여금 회화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새로운 작가의식의 투영으로 이어졌다.
- ④ 가변적이며 미완성적인 느낌, 속도감을 회화에 표현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체현이라고 볼 수 있다.

02.메를로 폰티가 혼탁한 신체를 주장한다는 것은 곧 신체가 가지는 지각의 차원이 정신의 차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o,x)

03.세잔은 자신의 회화의 목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 ) 이라고 했다.

## 7주차. 모더니즘의 시대(아방가르드와 팝아트)

01. 아상블리주란 프랑스로 집합, 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내지 3차원적 입체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반면 종이나 베의 조각등을 평면 화면에 붙이는 2차원적 작업은 ( ) 라고 한다.

02. 아방가르드가 미술에만 통용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진행된 문화운동이라고 했을 때,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아방가르드 문화운동은 미국의 팝아트가 보여주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모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 ② 아방가르드적인 문학작품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거부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불연속적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심리적 시간을 중요하게 다룬다.
- ③ 19세기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문학의 등장인물들이 사회와 상호관계를 맺던 것과는 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분열증적인 인격을 묘사하기도했다.
- ④ 아방가르드적인 음악은 연주의 경우 리듬이나 형식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연주자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연주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03. 영미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팝아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예술 작품이 상품에 대한 반대라는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순수 예술의 가식성을 비판한다.
- ② 순수한 예술의 이미지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상품의 예술화를 꾀한다.
- ③ 팝아트는 상품위주의 산업사회를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당시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 ④ 대표적인 작가로는 리처드 해밀턴과 앤디워홀, 뒤샹이 있다.

### 9주차. 추상의 세계 : 뜨겁거나, 차갑거나, 숭고하거나

01. 회화에서의 기호를 퍼스의 이론에 따라 도상 지표, 상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고대 예술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 상식은 회화의 기호를 ( )으로 파악해왔다.

02. 아방가르드가 미술에만 통용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걸쳐 진행된 문화 운동이라고 했을 때 폴록의 액션페인팅은 우연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특정 이미지나 규약을 창조하는 것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활동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징 기호로 이해될 수 있다. (o,x)

03. 숭고와 관련된 칸트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인간은 물질계와 예지계에 속해있는 이중적 존재이며 물질계로부터 예지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바로 자유이다.
- ② 인간이 물질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감각정보를 받아들여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은 곧 감성능력, 오성능력, 구상력이 각각 조화롭게 발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포괄이 아닌 포착이 실패할 때 인간의 지각은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곧 압도적인 숭고를 만나게 한다.
- ④ 신의 존재 증명은 순수이성의 능력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이율배반의 문제이다.

### 10주차. 예술과 매체의 관계

01. 기술 복제의 시대가 낳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이제 기술은 단순히 작가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술 생산과 예술 작품의 수용을 위한 ( ) 조건이 되었다.

02. 벤야민은 정치의 예술화를 통해 예술의 참여자가 민주화되고 무엇보다 아우라가 소멸됨으로써 비판적인 거리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o,x)

03. 아우라에 대한 벤야민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아우라의 소멸은 현대 지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유일한 의미가 소멸된 곳에서 발행하는 원본의 해체 현상이다.
- ② 아우라의 소멸은 예술의 가치를 전환시킴으로써 기존의 주술적 맥락을 소거하고 전시적 평가적 맥락으로 이전시킨다. 복제를 통한 예술 작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 ③ 아우라는 복사품 앞에서는 위력을 발휘해도 기술적 복제품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④ 아우라의 소멸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것의 반복적 나타남으로부터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어떤 것의 일회적 나타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11주차. 예술과 환경의 관계 : 공공예술을 중심으로

01. 공공예술의 등장 배경은 1960년대의 특권층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의 효용을 넘어서 미술관 밖의 대중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술을 민주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예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 ( )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갤러리의 사업적 의도와 도시를 미관상 장식하려는 행정적의도가 결합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버블 경제라는 변화와 함께 공공예술의 현실적 적용 역시 위기를 맞게 된다.

02. 근대 국민국가의 권력은 도시 안의 ( )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살리는 방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전개한다.

03. 도심지 거리의 공공을 위한 다양한 인공의 구조물을 가리켜 ( )이라고 한다.

#### 12주차. 예술과 산업의 관계 1: 디자인과 패션

01. 근대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 ① 근대의 디자인 개념은 산업혁명 이후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외피의 상품을 만들려는 산업적 의도로부터 시작되었다.
- ② 근대의 디자인개념은 부르주아들과 차별성을 가지려는 귀족들의 미의식으로부터 추동되었다.
- ③ 근대의 디자인 개념은 당시 유럽 국가들의 국력과 미의식을 겨루는 중요한 기준과 척도라는 측면에서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 ④ 근대의 디자인 개념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제도에 종속되었던 의복과 물건, 주거에 대한 선택권으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02.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일까요?

- ① 패스트 패션은 소비와 생산의 주기가 인공적으로 빠르게 순환된다는 장점을 살려 유행 아이템만을 유통한다.
- ② 패스트 패션은 기획, 생산, 유통까지 전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단가를 장점으로 가진다.
- ③ 패스트 패션은 전 세계를 자신의 내수 시장으로 간주하는 초국적 글로벌한 마케팅 전략을 가진다.
- ④ 패스트 패션이 자랑하는 생산, 유통의 속도와 민감한 트렌드 포착 능력, 저렴한 가격이 생활의 질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03. 근대의 디자인 개념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 빈곤과 위생을 도시의 디자인을 통해 처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함의를 가진다. 이는 현대로 이어지면서 공공예술로 직접적으로 발전된다. (o,x)



## 정답

### 1주차. 예술과 문화, 예술과 기술의 관계

01. ①

해설 :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위상은 단순히 예술을 위한 도구성을 넘어서 예술 감상과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감성적 차원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02. ②

해설:

① - 기원전 3만년 전의 빌렌도르프 비너스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석기 시대부터 예술은 주술적 형식으로 존재해왔다.

③ - 그들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자연과의 대결로서의 생존이었고 예술은 강력한 주술적 도구였다. 내세에 대한 부활은 무덤에 관한 흔적이 있는 신석기에 이르러서야 대두하는 주제이다.

④ - 동굴벽화는 연습용이 아닌 제의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03. ④

해설 : 이집트의 예술은 현실 지배의 욕구보다는 죽은자를 위한 부장품의 성격이 강하다.

### 2주차. 미메시스의 다양한 지향들1

01. ②

해설: 이것은 헬레니즘적 미술의 특징이며 고전주의 미술은 감정의 절제를 지향한다.

02. ③

해설 :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

03. ①

해설:

② - 유용한 활용은 테크노 프락시스이고 포이에티케는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제작기술을 말함.

③ - 플라톤이 허위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허구의 문제로 보았음.

④ - 카타르시스가 아닌 모방으로 바꾸면 적당한 설명이 됨.

### 3주차. 미메시스의 다양한 지향들2

01. ④

해설 :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노예에서 황제까지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었던 세계 시민적 사상이다.

02. ③

해설 : 종교적인 도구로 예술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재료미학이라는 측면에서 형식미학과는 그 예술 의지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03. ③

해설:

- ① - 일자는 단일한 신으로서 다수로 존재하는 이데아와는 다르다.
- ② - 플라톤과는 달리 예술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④ - 플로티누스는 두세계 이론을 거부한다.

#### 4주차. 르네상와 순수 예술시대의 도래

01. ③

해설: 전그대인들의 존재의 근거는 차안이라는 현실적 공간에서 드러난 지배층의 권력이 아닌 피안의 신적 존재가 부여한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

02. ①

해설:

- ② - 순수 예술이 태동된 시기이지 정립된 시기가 아니다.
- ③ - 조각의 차원이 아닌 회화의 차원이다.
- ④ - 제도적인 체제와 공식화된 담론을 통해 가능한 것은 18세기 후반부에 이르러서이다.

03. ④

해설 : 미켈란젤로는 조각이 주종목이다.

#### 5주차. 근대적주체와 예술의 흐름

01. ④

해설 : 서구 고대의 전통은 몸과 신체의 행복한 결합을 자기에 대한 배려로 이해하던 시대가 있었다.

02. ②

해설 :

- ① - 전반적인 내용은 바른 서술이지만, 순서적으로 등장한다기 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 낭만주의 양식을 지배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광기와 열정으로 드러나거나 혼탁한 정치적 상황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주제에 있어서 불안과 광기를 보여준다.
- ④ - 의미는 현실과 경험에 기반한 주제를 그리겠다는 의미이지, 표현양식에 대한 사실주의적 방법의 강조로 보아서는 안된다.

## 6주차. 근대가 보여주는 감각적 표현

### 01. ②

해설 : 원근법을 무시하는 그들의 화풍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파격적이었지만, 올랑피아 같은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했다.

### 02. X

해설 : 가치의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 03. 구현

해설 : 세잔은 자신의 회화의 목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구현이라고 했다. 또한 풍경의 구조를 탄생하는 유기체로 포착하여 사물 하나하나가 가진 '숭고한 지속'을 구현해 내었다.

## 7주차. 모더니즘의 시대(아방가르드와 팝아트)

### 01. 콜라주(Collage, collage)

해설 : 종이나 베의 조각 등을 평면 화면에 붙이는 2차원적 작업은 콜라주라고 한다.

### 02. ①

해설 :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은 귀족적, 엘리트적, 지나치게 독립적 영역으로 이해되던 근대 예술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팝아트는 아방가르드적인 입장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 03. ①

② - 예술의 상품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③ - 산업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암묵적으로 산업사회의 수용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

④ - 뒤샹은 오히려 아방가르드로 분류되어야 한다.

## 9주차. 추상의 세계 : 뜨겁거나, 차갑거나, 숭고하거나

### 01. 도상(또는 Icon)

해설 : 현대 회화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회화의 기능이 시각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상 기호이기기를 포기한 순간, 기호는 지표나 상징이 되어 작가가 창조하거나 차용한 이미지의 규약으로 바뀐다.

### 02. X

해설 : 상징의 기호를 지표 기호로 바꾼다면 제시된 지문은 풀록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

### 03. ③

해설 : 지각의 실패가 곧 송고를 자동적으로 수반하지는 않는다. 지각의 실패는 송고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압도적인 객관성 앞에서 인간의 주관의 안정적일 때 비로소 송고를 만나게 된다.

## 10주차. 예술과 매체의 관계

### 01. 선형적

해설: 이때의 선형이란 초원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 이전의 조건, 즉 성형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 02. X

해설 : 정치의 예술화가 아닌 매체의 기술적 발전을 통한 예술의 정치화가 수반한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 03. ④

해설 : 아우라의 소멸은 가까이 있어도 일회적 현상으로부터 멀리 있어도 반복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11주차. 예술과 환경의 관계 : 공공예술을 중심으로

### 01. 조각

해설 : 공공예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 조각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려는 갤러리의 사업적 의도와 도시를 미관상 장식하려는 행정적 의도가 결합하면서 진행되었다.

### 02. 인구

해설 : 중세의 권력이 죽이는 힘을 보여줌으로써 권위를 표현했다면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권력은 도시 안의 인구를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살리는 방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전개한다.

### 03.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해설 : 도심지 거리의 공공을 위한 다양한 인공의 구조물을 가리켜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하며, 이것은 단순히 도시를 장식하는 개념을 넘어서 공공의 가치를 공적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삶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2주차. 예술과 산업의 관계 1: 디자인과 패션

### 01. ④

해설 :

① 근대 디자인 개념의 배경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려는 근대라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였으며 산업적 차원에 대한 고려는 이후 자본주의의 심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다.

② 근대 디장니 개념은 단순히 특정한 계급의 욕구에 의해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사회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요청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소비적 양상에 있어서는 반대로 오히려 부르주아들이 귀족의 미의식을 추격하면서 진행되었다.

③ 근대 디자인 개념에 대한 요청은 전 유럽에서 전개된 상황이었다. 단순히 국력과 미의식의 측면이 아닌 사회통합과 빈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것이었다. 프랑스보다는 산업이 발달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02. ①

해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베이직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우도 있다.

03. X

해설 : 인간의 삶의 차원을 이성적 사유의 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은 지나친 기능주의를 불러왔다. 오히려 이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공공예술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